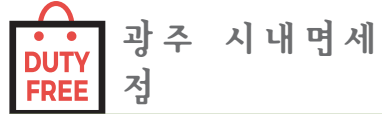


“관광도시 광주 만들 정책 뒷받침 돼야”



광주 시내 면세점

<하>관광정책 수립 필요

정부가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가운데 광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렛대 역할 큰 기대 관광전담기구 설립·인프라 확충 등 과제도

시장은 출혈경쟁과 소비층 변화 위축되며 ‘시내면세점=해외 관광객 유치’ 공식이 깨졌다. 일각에서는 시내면세점이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광주만의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몰려있는 문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을 발표했다. 문화가 성장동력이 되는 문화창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마이스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확충·관광 활성화, 매력자원을 활용한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국제관광도시 광주’를 내걸며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지난해 8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문화관광체육부의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조기 건립과 호텔, 시내 면세점 등 부가가치가 큰 연관 산업유치를 추진했다.

시는 면세점 입지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과 어등산 관광단지 등을 염두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면허 획득을 계기로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과 시내면세점을 함께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광주시의 기대와 달리 면세점 업계 등은 시내면세점 확대에 따른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4만4,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대에 불과하다. 이런 광주의 관광 현실에서 시내면세점에 선뜻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 인천도 최근 경영 악화로 문을 닫거나, 유동인구가 몰리는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와 중국 사드 보복 등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모든 면세점 업계가 신중한

입장이라 선뜻 투자자사를 밝힐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향, 예향, 미향에 기반한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관광자원 발굴은 이제 시작단계다. 호텔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는 민간사업자 투자 없이는 확충할 수 없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전담기구 설립은 관련 용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가 불투명해 멈춰선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 시장과 소비자층 변화 등 동향을 파악하며 유치 논리 등을 개발하고 있다”며 “시내면세점 유치와 함께 광주의 특색을 담은 관광정책과 상품 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끝> /황애란 기자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13일부터 3일간 평화의 소녀상 앞·시청서 개최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3일간 시청 시민숲과 무등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날(1991년 8월14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법률로 제정했다. 이어 14일 오후 6시30분 시청 평

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끝까지 않은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 발언, 헌화, 추모공연 등 기념식을 개최한다.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기행단’이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와 옛 도청 등을 돌아보고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부대행사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삶의 터전인 ‘나눔의 집’에서 20여 년간 생활해 온 할머니들의 회로예락을 담

은 다큐멘터리 ‘애움길’을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상영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기억’ 전시회가 열린다.

UN문서와 사료,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 영상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의 진실을 더 정확하고 깊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현미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시민 모두 기림의 날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친일잔재 청산 단죄문 제막식 8일 오전 광주공원에서 열린 ‘친일잔재 청산 단죄문 제막식’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뿔뿔 나간 윤용렬, 이근호, 홍남규의 친일파 공적비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국비 30억 확보 미꾸라지·새우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 등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미꾸라지와 새우 양식시설 구축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 기르는 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된 공모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약 한 달간 모집 기간을 통해 접수된 전국 7개 시·도, 14개 과제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

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20억원의 친환경 미꾸라지 스마트양식시설 구축과 10억원 규모의 ICT예방양식 바이오플라 새우 양식시설 구축 사업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인 양식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친환경 양식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기찬 어촌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전남여성가족재단, 11월 시상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은 ‘청소년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전은 전남지역 8~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상에서 느끼는 성차별’, ‘성평등한 전남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표현한 시, 산문, 그림, 포스터, 사진 등의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초·중·고등학교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 상금은 360만 원 규모다. 시상식은 11월께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목포서 전국 섬 사람 애환 나눈다

제1회 섬주민 대회...주민 권익 선언문 채택

전국 470여개 유인도를 대표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생활의 애환을 나누는 제1회 전국 섬주민 대회가 9일 오전 10시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다.

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국 섬주민 대회는 선언문 채택, 섬 생활 애환 이야기 경연대회,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

된다. ‘전국섬주민협의회’ 선언문에는 섬의 접근성 개선 등 섬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야기 경연대회에선 ‘섬주민, 삶의 소리, 섬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주제로 섬 주민들의 애환, 성공담, 실패담 등 섬 생활 체험이야기를 발표한다. /김영민 기자

섬을 가진 전국 4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로 1명씩 참여해 서류 심사료 1차 예선을 통과한 8명의 이야기꾼들이 당일 최종 결선을 벌인다.

경선 후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행사 당일에는 진도북춤, 가거도 멸치잡이 창작무용, 섬을 주제로 한 모노드라마 등 풍성한 섬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친교의 시간에는 ‘나도 한마디’ 1분 스피치가 이어지고 전국에서 모인 섬 주민들의 소통 시간이 진행된다.



호남동 대원 빌딩 총별

“특별분양”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추천 업종”

- 1 높은전용률 확트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불링장,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